



백인현 - 합죽선

## 한국의 멋 단오절, 한지 부채에 스미다

2015년 6월 20일,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이다.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절은 궁중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단오부채(端午扇)가 있었으며, 여기서 유래하여 서로 부채를 선물하였다.

글 : 백인현 (한국화 한지민예품연구소장)

2015년 6월 20일, 음력 5월 5일은 단오절이다. 단오절은 설,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수릿날(戌衣日, 水瀨日), 중오절(重午節), 천중절(天中節), 단양(端午) 등으로 불리며,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큰 명절로 여겨져 왔다. 특히, 더위가 시작되는 단오절은 궁중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부채를 하사하는 단오부채(端午扇)가 있었으며, 여기서 유래하여 서로 부채를 선물하였다. 이러한 단오절을 맞이하여 금년에는 우리의 전통부채인 합죽선(合竹扇)과 한지 부채를 중심으로 한지 등, 한지 연, 한지 우산을 통한 제12회 〈한국화 한지민예품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04년부터 시작한 〈한국화 한지민예품전〉은 접는 부채, 둥근 부채(방구 부채, 단선, 원선), 특별한 용도의 별선, 한지 사각 등, 한지 둥근 등, 한지 방패연, 한지 가오리연, 한지 우산, 한지 옷, 한지 그릇, 한지 포장지, 병풍, 가리개, 한지 격자창과 미단이창 등의 한지를 재료로 사용한 우리 전통 민예품의 향기와 멋을 한국화 작품으

로 새롭게 창작하며, 그 실용성과 더불어 예술적 미학적 가치를 연구해 왔다.

2013년에는 10주년 기념으로 〈한국화 한지민예품전〉과 함께 전국중등미술수석교사 워크숍, 한국화 한지민예품 학생작품전, 청소년 한국화 한지민예품 체험축제, 〈한국화 한지민예품 교육〉의 책자 발간 등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한국화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과 조형성을 모색하고, 한지민예품의 실용적인 면과 함께 한국적 멋을 추구해 온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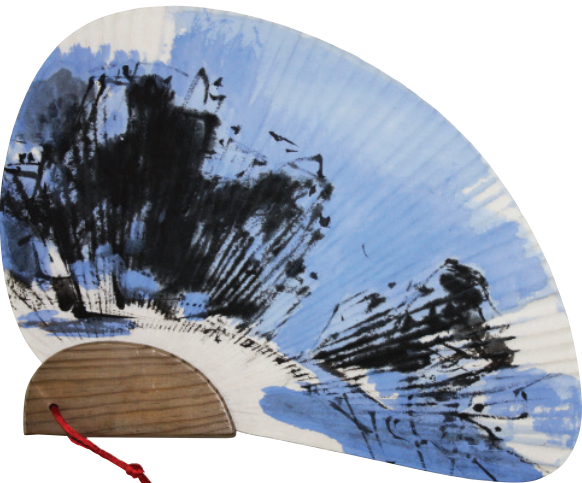
지금 우리의 문화는 서구화된 의식, 기계화된 공장제품, 핵가족화 된 사회가 되면서 선조들이 자연에 순응하며 면면히 가꾸어 온 우리의 멋과 슬기, 전통, 그리고 아름다운 풍속들까지 모두 잊혀져가고 있다. 이에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문화의 순수성을 되살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중대한 과제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화 한지민예품전은 선인들의 멋을 재인식하고 새로운 전통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

앞으로 우리는 〈한국화 한지민예품전〉을 통하여 전통미학을 새롭게 조망하고 작품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참여작가〉  
강구철 강규성 고순금 고정곤 권오석 김경애 김성관 김승열 김연경 김영목 김 옹 김일도 김혜영 남윤표 문공열 박경동 박성식 박용창 박해도 박해인 백인현 서흥석 성민우 소정희 신주호 심미수 심응섭 양정모 우수항 유덕철 유인숙 윤여환 이가형 이민구 이석구 이성열 이승복 이유경 이종필 이진숙 이환범 임원빈 장명옥 장연수 장태영 정기해 정스런 정황래 조용연 최기성 최명숙 최용준 하태진 한윤기 홍미림 홍민표 홍재범



한윤가-원선



강구철-나비선



윤여환-원선



이석구-한지 우산



하태진-접선